

고창군, 체육시설 활용 스포츠마케팅 주력

전국체전 유도·러비 경기장 응원단 배정 등 적극 홍보 사업비 50억 들여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구상도

고창군이 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제99회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창군립체육관과 고창공설운동장 등에 전국 시도 선수단 위문단과 응원단을 배정해 운영하며 스포츠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전국체전 유도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립체육관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됐다.

여기에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경기장, 테니스장 등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으며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나설 구상이다.

군은 이 같은 시설을 통해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각 종목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봅슬레이 스킨레온 국가대표팀이 지난 2013년부터 전지훈련을 거듭해 왔으며, 윤성빈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우수 인프라 구축을 검증받았다.

군은 구축된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

는 전담 부서 신설에 나서고 있다. 스포츠마케팅팀 신설로 전국규모의 체

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스포츠마케팅팀 신설을 통해 군의 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지역에서는 전국체육대회 기

간 유도와 러비 경기기가 각각 고창군립체육관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오는 25일 개막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 군립체육관에서 배구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고창군이 제99회 전국체전 경기장을 활용해 체육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공설운동장의 러비 경기 모습. <고창군 제공>



화순군 등 폐광지역 7개 시·군단체장 '행정협의회' 창립 정부에 대체법인 활성화·긴급지원 요청

화순군 등 한국 근대화의 성장동력 중 하나였던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16일 충남 보령시청에 모여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창립총회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태영 영월 부군수, 정대규 정선 부군수, 김경호 화순 부군수 등 단체장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기업회생 중인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충남 보령의 대전리조트에 대해 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폐광지역 대체법인 활성화에 공동노력하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요율인상,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규모 확대, 국회에 계류 중인 폐특법 개정안 신속처리 요청을 결의했다.

회장을 맡은 김동일 보령시장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에 따라 광해공단지구와 강원랜드, 지자체가 공동출자해서 만든 대체법인인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으로 극도의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와 광해관리공단 등은 경제논리만 내세운 채 외면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적극 나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수립해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무연탄은 1988년 347개 탄광에서 2429만t을 생산했으나 1989년 말부터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광산 수가 급격히 줄어 지난해에는 5개 광산에서 150여만t 생산에 그쳤다.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인구는 1987년 78만명이 넘었으나 지난해 말 절반 수준인 44만여명으로 줄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군산시, 도시민 유치 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6억 확보

귀농귀촌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미래농업인력 양성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이뤄졌다.

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각종 정착 이주 지원, 지역민과의 화합도모 및 도시

민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상지역을 선정했으며, 최종적으로 군산시를 포함해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에서는 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전호성)와 함께 귀농귀촌 박람회 및 도시민 상담·홍보 행사 참여와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해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

과물을 이끌어냈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시가 2015년부터 4회에 걸친 도전 끝에 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귀농귀촌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농업인력 확보와 인구유입을 이끌어 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세계 도자기 문화 '한눈에' '남원 국제도예캠프' 개막

세계의 도자기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7회 남원 국제도예캠프'가 19일부터 사흘간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조선 도공 한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인도, 그리스 등 세계 13개 국가 110여명의 도예가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된다.

전통 도자기 제작기법 시연과 초청작가 워크숍, 도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남원의 도자기 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전통도예 문화를 서로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은 일본 3대 도자기이자 세계 도자기의 명품으로 알려진 '사쓰마 도자기'의 원류인 조선 도공 심수관(家)의 본향이다.

김광길 도예캠프 조직위원장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을 추모하고, 조선 도자기의 원류인 남원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방음문 생산업체 '국민도어' 남원에 공장 설립

시, 15억 투자 협약 체결

방음문 전문 생산업체인 국민도어(대표 표국인태)가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기로 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국민도어는 지난 16일 시와 협약(사진)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노암산업단지 7490㎡ 부지에 공장을 건립하고 방음문을 비롯한 특수 문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민도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남원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규 남원부시장은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인태 국민도어대표는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55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3605-5000

